

해외동향

日 안치천철공, 亞 공략 시동

일본 안치천철공이 아시아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안치천철공은 베트남 전력청으로부터 50만V 송전선 철탑 170기를 수주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01년 11월 인도네시아 전력청 수주에 이은 두 번째 대형물량으로 호치민 시 근교의 '후미변전소'와 '후라므변전소'를 연결하는 총길이 60km의 철탑공사다.

이번 공사의 설계와 시험은 안치천철공이 맡았고 제작은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베트남 전력청의 합작회사인 현대돈압철탑이 맡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안치천철공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국내시장 침체를 만회하고 동남아시아 진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美·加 신규 원전시장 '급부상'

미국과 캐나다가 원전 신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원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 원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국내 원자력계의 움직임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국내 원자력산업계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12개월 동안 '북미지역 원전시장 진출전략 수립 연구'를 수행,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수원과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8일부터 28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현지 시장여건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5월경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연구과제는 산업자원부가 전력연구개발기금에서 연구비를 출연해 수행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세계 최대 원전시장인 북미지역의 원전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북미 시장의 환경 분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국내 업체들의 분야별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주요 참여 분야로는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설비개선 및 수명연장사업과 관련된 설비 및 기술 수출

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동향과 관련 정부 및 산업계 추진동향을 파악하게 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북미지역 가동중원전 및 신규원전 사업의 추진동향 및 사업정보를 입수하는 동시에 기업별로 추진되던 북미지역 마케팅이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수출 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은 10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70년대 가동을 시작해 현재 설비개선, 수명 연장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또 21세기 초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가동 중지된 브라운 페리(Brown Ferry) 원전의 재가동 추진 및 신규 원전건설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도 포인트 레프로(Point Lepreau) 원전 등 가동중원전의 설비개선 및 수명연장을 추진함은 물론, 운영 관리상의 문제로 가동이 중지된 브루스(Bruce) 원전 등 8기의 재가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원자력업체들은 분야별로 각각 북미 원전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사업수주 실적도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사업정보 수집 및 진출 체제 구축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中 ‘CCC인증’ 5월 시행

중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전기·전자·기계류 등 19개 분야 132개 품목의 생산품 및 수입품에 대해 통합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마크’ 도입을 전면 시행키로 확정, 이에 대한 국내 관련 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 생산품(CCEE)과 수입제품(CCIB)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WTO가입을 계기로 오는 5월 1일부터 새로운 강제인증제도인 ‘CCC인증마크’로 통합·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 1일부터 중국강제인증제도로 통합·운영키로 하고 올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5월부터 CCC제도 대상품목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인증기관으로부터 CCC인증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관련 기업들은 CCC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소홀할 경우 對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강제인증마크 검사대상에는 ▲전선 및 케이블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저압형 전기장비 ▲전동공구 ▲전기용접기 ▲생활용 전기제품 ▲용접기 전선수송장비 ▲전기홀더 등이 다량 포함돼 국내 전기 관련 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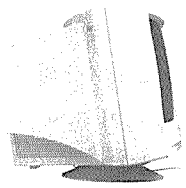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CCC인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480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인증 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 1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日 주부전력 배전선 제어시스템 개발

일본 주부전력은 2개 이상의 영업소를 광역적으로 자동제어할 수 있는 '배전선 제어시스템'을 개발, 운영을 시작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전주 배치도와 배전 계통도 등을 관리하는 '배전업무 종합지원 시스템'과 전주 위의 개폐기 조작 등을 원격조종하는 '배전선 자동화 시스템'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주부전력 관계자는 "그동안 영업소 구역 내에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상이 없는 구역에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화연락 등 인위적 방법이 최선의 대응책이었다"며 "하지만 이 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이러한 구역내의 송전이 수십 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부전력은 이 시스템을 오는 2009년까지 전 영업소에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